



## “보복성 인사, 어떤 결과 낳을지 똑똑히 보게 될 것”

연합뉴스 조합원들이 뽑았다. 200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본사 7층 사장실 앞 복도를 가득 메웠다. 전 사원의 71%가 박정찬 사장의 사장직 수행을 반대한다는 뜻을 담은 단체 티셔츠를 입고서였다.

파업한 지 70일이 넘었음에도 이날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가 들끓은 것은 전날 멕시코시티 특파원인 양정우 조합원에 대한 박 사장의 보복성 인사 때문이다.

박 사장은 양 조합원의 임기가 1년여 남았음에도 6월 25일까지 귀임하라고 인사 발령을 냈다. 특파원 가운데 혼자 파업 대오를 유지한 양 조합원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북한부 이준삼 조합원은 “박 사장의 저 행위는 분명도발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왜 저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참혹하고 슬프고, 기가 막힌다”며 입사동기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분노를 표출했다.

노조는 오전 11시 본사 앞 한빛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성 인사를 낸 사측의 행태를 규탄했다.



공병설 위원장은 “회사는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유일의 중남미 특파원을 조기 소환했다”며 “말도 안 되는 보복성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 위원장은 “사장은 ‘징계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는 정규 인사로 포장한 명백한 보복 행위”라며 “집행부도 아닌 단순 참여 조합원에 사실상 징계를 내린 셈”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인사가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나온 것이라 사실상 ‘판’을 깬 행동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의 안을 갖고

접점을 찾자고 해 토론회를 거쳐 노조의 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성의있는 협상 태도가 아니라 뒤에서 비수를 찌르는 인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원들은 빨리 협상을 끝내고 돌아가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싶다”면서 “일선 조합원들의 뜻이 이러한데 자칭 ‘최고경영자’라는 박 사장의 행태는 어떠하냐”고 반문했다.

공 위원장은 “이런 행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조합원의 동기인 사진부 서명곤 조합원도 투쟁사에서 “이번 인사로 박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노조가 어찌해야 할지 확고해지는 계기가 됐다. 푹푹 뭉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서 조합원은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양정우 조합원과 통화를 했다며 “정든 목소리를 들으니 할 말이 없어지더라. 힘을 내라고 하니 ‘내가 힘낼 것 뭐 있느냐. 안에서 열심히 싸워달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 대학가에 연합뉴스 파업 소식이 넘실넘실

### 고대·이대에서 파업 선전전 펼쳐

연합뉴스 조합원들은 24일 고려대와 이화여대를 찾아 박 사장의 조기 퇴진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쳤다. 또 언론사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취업상담을 했다.

박경준(정치부), 윤지현(국제뉴스부) 등 조합원 8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30분간 박 사장의 모교인 고려대의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연합뉴스의 파업을 알렸다.

이들은 때마침 축제가 열리고 있는 캠퍼스 한복판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터를 잡고서 대형 천막과 책상을 설치하고 ‘공정보도 쟁취’ 스티커 등으로 천막을 꾸몄다.

일부 조합원들은 “연합뉴스 파업이 71일째입니다. 공정보도를 위해 파업하고 있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를 외쳤으며, 다른 조합원들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수백장의 홍보물을 나눠줬다.



# 연합뉴스 최고경영자 ‘박정찬’, 그는 누구인가 뒤통수 치기의 달인

4월 초

박 사장의 자원투표 제안 수용하겠다. 대화하자. 출근저지 잠시 보류한다. 4·11 총선 취재 필수 인력 투입하겠다.

바깥에서 바보 소리 듣고, 후배들에게 들을 수 있는 욕 다 들었다. 나 발가벗었는데 여기서 더 벗으라고 하면 오히려 난 더 입어야겠다.

**헛! 독았지?** **1차 업무복귀명령**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파업과 해사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사규를 엄정하게 적용할 것임을 알립니다)

## 둘이서만 만나요 ‘샤이보이’

4월 20~26일

노조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 일대일로 만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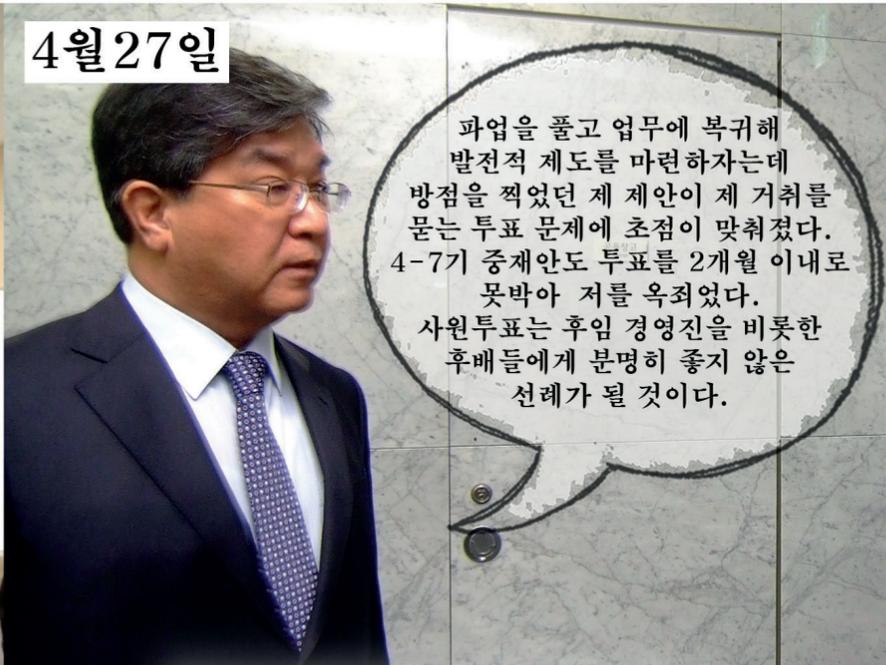
사장과 위원장간 만남은 공식적이어야 한다. 독대가 아닌 4대4와 같은 정식 대화를 갖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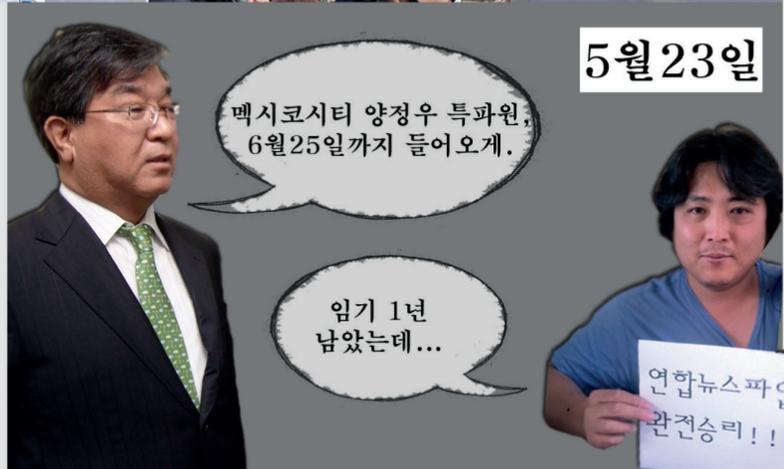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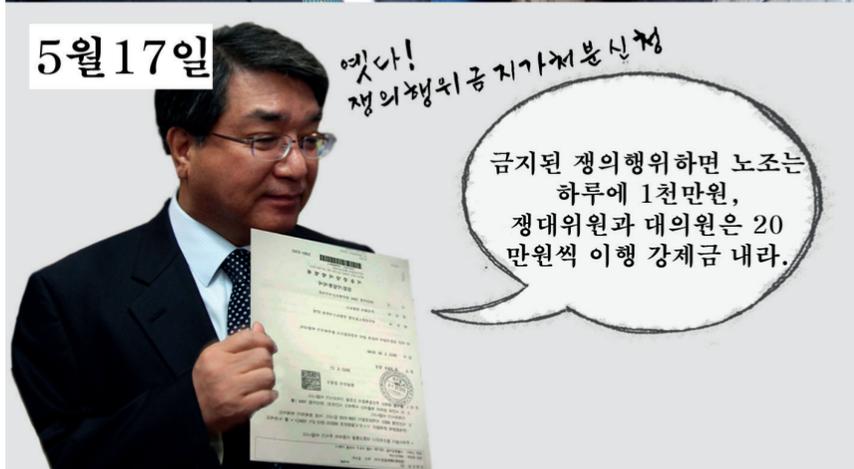
(5일 후)

지금 만나서 잘못하면 서로 감정이 격앙돼서 사태를 더 악화할 수도 있겠다. 위원장과는 파업 사태 풀때 최종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낫겠다.

# 거취 문제는 “내 맘이야~”



## 연합뉴스 조합원에 대한 박 사장의 사랑



☞ 1면에 이어

언론사 취업상담은 단연 인기를 끌었다.

고대신문사 현직기자 등 30여명의 대학생들이 현직 기자에게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고 명함까지 받아갔다. 연합뉴스 노조를 응원하며 음료를 사와 건네기도 했고 자발적으로 응원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천막을 찾아 30분 가까이 상담을 받은 고려대생 문모(24)씨는 “언론사 입사에 관심은 많았지만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몰라 막막하던 터에 현직 기자들한테서 조언을 받을 기회가 생겨 매우 유용했다”며 “연합뉴스 파업에 관해서도 잘 몰랐는데 설명을 듣고 보니 취지에 공감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연합뉴스노조

파업에 대해 관심 있다며 찾아와 홍보물을 받아갔고 ‘많은 기자들이 반대하는데 사장이 왜 나가지 않는가’ ‘불공정 보도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1~2년차인 조합원 5명은 이대를 찾았다. 이들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학생문화관 앞에 ‘연합뉴스 파업 천막’을 마련, 축제를 맞아 흥겨운 분위기의 캠퍼스에서 선전물을 나눠주고 응원 메시지를 받았다. 특히 남성인 김지현(사회부) 조합원이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곳을 찾은 학생들의 연합뉴스 파업에 대한 관심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학생들은 현재의 뉴스통신진흥법이

올바른 것인지에서부터 텐트 투쟁의 효과에 이르기까지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진정한 언론인은 투쟁하는 언론인’, ‘언론 공공성을 위해 투쟁하는 언론 노동자들을 지원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주변에서 장터를 열고 있던 학생들은 팔빙수, 과자, 음료수를 가져다주면서 언론사 파업 승리를 기원했다.

조합원들은 같은 시간에 대학가 선전전을 진행하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만나 격려의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이날 조합원들은 언론정보학과 수업에 들어가 연합뉴스 파업에 대해 설명하고, 언론사 입사를 희망하는 대학

생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등 다양한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날 대학선전전에 나선 박수윤조합원(경제부)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합뉴스가 파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음번에도 더 많은 대학생에게 연합뉴스 파업을 알리는 선전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이정현 조합원(사회부)은 “다들 무관심할 거로 생각했는데 대학생들이 파업설명을 붙여놓은 전단을 열심히 보고 가는 것 같아서 뿌듯했고 희망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합원 신혼기

# 사회부 김동현- 정기연 부부

동현군과는(아직 신랑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지 않아요) 십여 년 전에 만났습니다. 대학 영자신문사 동기로 만났던 첫날, 머리에 젤을 듬뿍 발라 물에 빠졌다 나온 듯 머리카락 전체가 두상에 착 달라붙어 있는 ‘마르고 까칠한 소년’이 첫인상이었어요. 절대 친해지지 못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앞뒤가 맞닿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둘이 무언가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주변 배경이 사라지고, 그 공간의 공기 감까지 느껴지는 진공상태 속에 있는 듯한 느낌... 그런 순간들이 모여 지금껏 함께 하게 되었답니다. 무엇보다도 신랑의 ‘한결같음’은 늘 잔잔한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완벽한 파업, 감사합니다.”

5월 6일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남들은 ‘무노동무임금’이라고 걱정하지만, 철 털 든 저는 신랑이 ‘무급 휴가’를 받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상 출근했다면 아침에 눈 뜨기 전에 나가서 잠들 때

나 들어왔을 텐데요, 혼자서 짬짬매며 결혼 준비하고 신혼 생활에 적응할 뻔했던 시간에 둘이 함께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덕분에(?) 가장이 된 저는 퇴근 후 집에 오면 신랑이 차려준 맛난 밥상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 때는 요리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그가 요리책을 보며 정성껏 저녁상을 차리는 모습은 신기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시 오지않을 신혼, 저는 휴가와 같은 파업이 감사합니다.

“공정보도 쟁취투쟁 파이팅!”

89년 이후로 처음이라는 연합뉴스 파업. 솔직히 기존 연합뉴스 이미지는 ‘공무원’ 같은 조직이어서 공정보도 투쟁을 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타이밍을 보고 하는 척만 하거나, 금방 끝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편견이었네요,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파업이 석달째 접어들었고 천막투쟁을 하면서까지 투쟁을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며 조합원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도 흥내’만 내



는 곳이 아닌, ‘진짜 기사’를 쓰는 보다 ‘내실 있는’ 언론사로 성장하길 곁에서 조용히 기원해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기자로 활동하는 신랑, 그리고 동료 분들, 모두 멋지세요, 파이팅입니다.